



[경제종합]  
무거워진 차례상  
전통시장-대형마트  
나눠 구입해야 알뜰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코스닥
2403.68 (-5.73)	771.43 (-14.45)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원·달러)
3.616 (-0.062)	1371.40 (+8.80) (5일)

# 1371원 ‘킹달러 쇼크’ 당국 구두개입 안먹혀

금융위기 후 처음 1370원 돌파  
정부 비상회의에도 원화값 추락

추경호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수출·수주 경쟁력 강화 지속강구”

원화값이 정부의 ‘구두개입’에도 날  
개없는 추락을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  
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째 연고점(원  
화값 최저)을 기록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직전 거래일(1362.6원)보  
다 8.8원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1371.4원에 마감했다. 장 마감 기준으  
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일  
(1379.5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  
으로 1370원을 넘어섰다. 지난 2일 기  
록한 연고점(1362.6원)을 1거래일 만에  
다시 경신한 것. 시장에서 환율 단기고  
점을 14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분  
석까지 나온다.

최근 원화값 추락(달러 강세)은 미  
국의 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날 장이 열리기 전 정부가  
비상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원화값 하  
락을 막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  
동해 해외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  
석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7월 28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추 부총리는 “달러화가 20년 만에 최  
고치까지 상승한 영향으로 주요국 통  
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  
이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  
며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  
세 영향이 중첩되며 원·달러 환율이 빠  
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 참석  
후 “강달러에 비해 원화 하락세가 과도  
하다”는 질의에 “그 전에는 원화 가치가  
떨 떨어졌는데 어떤 기간을 두고 보는  
지에 따라 답이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흑자를 보여왔던 경상수지마저 그  
폭이 축소되는 등 당분간 변동성이 커  
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1~6월) 경상수  
지 흑자 규모는 240억달러를 돌파하며  
한은의 전망치(210억달러)를 상회했  
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매달 큰 폭  
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유  
가 급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  
안이 재차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  
동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대내 요인보  
다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 때문”이라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무역수  
지가 악화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  
러 적자로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발표한 수출경  
쟁력 강화 및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무역구  
조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며 “경상수지와 내외국인  
자본 흐름 등 외환 수급 여건 전반을 면  
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방안 등도 지  
속해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정적인 대외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층적 유동  
성 공급망 체계도 갖춰져 있어 위기 상  
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단  
은 게 정부 설명이다.

/원승일(세종)·백지연 기자 won@metroseoul.co.kr



태풍 ‘힌남노’가 북상중인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제주항공 정비사들이 항공기에 결박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힌남노’ 전국 영향권… 최대풍속 초속 50m

태풍 북상 속도 점점 빨라져  
부산인접 오전 6시, 시속 40km

제11호태풍 ‘힌남노’(HINNAMNO  
R) 북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제주를 지나  
부산에 근접하는 6일에는 북상 속도가  
시속 40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  
날 낮 12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km 해상에서 시속 24km로 북상하  
고 있다. 태풍 중심기압은 930hPa(헥  
토파스칼), 강풍반경은 430km, 최대풍  
속은 초속 50m(시속 180km)로 ‘매우

강’ 단계다. 이는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수준이다. <관련기사 6면>

힌남노는 6일 오전 1시께 제주에 가  
장 근접하고, 오전 6시를 전후해 경남  
남해안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  
은 예상했다. 6일 자정 기준 태풍은 서  
귀포 남동쪽 약 30km 해상에 위치하며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410  
km, 최대풍속은 초속 47m(시속 169km)  
로 ‘매우 강’ 단계다.

태풍의 이동 속도는 남해안에 근접  
할수록 빨라지는 양상이다. 제주에 근  
접하는 6일 자정에는 시속 31km, 부산  
에 인접한 오전 6시경에는 시속 40km에

달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제주도와 제주도  
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상, 전남권,  
경남서부남해안에 태풍특보가, 수도권  
과 강원북부, 충남북부에 호우특보가,  
경남권해안과 충남서해안에 강풍특보  
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40mm 의  
강한 비와 최대순간풍속 초속 25m 이  
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남해안에 상륙하  
는 6일 아침 만조 시간대가 겹쳐 폭풍  
해일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 강조다. <4면에 계속>

/한용수(세종)·박정익·허정윤 기자 hys@

## ‘카플레이션’ 장기화… 전기차 시장 재편되나

원가상승에 車 가격 인상 불가피  
고가정책 테슬라, 가격인상 주도  
완성차사 ‘3만불 車’ 시대 본격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가격 인상 압  
박에 시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된 탓이다.  
모처럼 회복된 공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다만 일각에  
서는 ‘진짜 실력’을 발휘할 기회라며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 판도가 재정립될 것이라는 기대  
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최  
근 새로 출시하는 모델을 대상으로 가  
격을 일부 인상했다. 테슬라는 지난 1  
년여간 50%에 가까운 가격 인상을 단  
행하며 ‘카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

다. 차량 가격 뿐 아니라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가격까지 올리면서 동급  
경쟁 모델보다도 구매 비용이 수천만  
원 오른 상황이다. 그 밖에도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  
리거나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산차 업계 역시 연식 변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물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류 비용이 크  
게 증가한데 이어, 인플레이션과 우크  
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도 오  
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  
요 소재인 강판 가격까지도 인상이 불  
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시장 ‘양극화’도 가격 인상 요  
인 중 하나로 꼽힌다. 프리미엄 모델 인  
기로 고급화가 가속화하면서 자연스럽

게 차량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경기 침체에 자동차 가격까지 오르  
면서 수요 축소는 기정 사실화되는 모  
습이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밀려있  
던 대기 물량이 잇따 주문 취소로 빠르  
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  
격 인상이 뚜렷한 미국 자동차 시장 침  
체 우려가 크다. 다만 오히려 이같은  
문제가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긍  
정적인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지난 반  
도체 공급난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졌  
던 상황,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  
면서 과도하게 책정됐던 자동차 가격  
도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당장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 가격을  
대폭 낮춘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을 새  
로 출시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김혜경 법카 유용 혐의’ 핵심인  
물 배모씨 소환  
▲ 이재명 “화천대유 때도 특검 필요 있  
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뉴시스

▲ 한동훈, ‘이재명 檢소환’ 野 반발에  
“전쟁 아니라 범죄 수사”  
▲ 국가수사본부장 “이준석 추석후 출석  
조율… 이달내 수사 마무리”



▲ 이원석 “이재명 소환, 진술 기회 드린  
것… 법리 따라 판단” /사진 뉴시스  
▲ 박홍근 “김여사 의혹 증폭… 봐주기  
일관하면 특검 추진할 수 밖에”